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인프라 동향 보고(1.30)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분	내용	비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4.01.30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2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84% (전월대비 0.81△)	'23.12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4년 01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5.5 bp during last week, +369.5 bp during last month, +369.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5.5 bp	12.200 % Jan 28, 2024		12.255 % Jan 27, 2024
1 Month	+369.5 bp	8.505 % Dec 30, 2023		12.255 % Jan 27, 2024
6 Months	+369.5 bp	8.505 % Jul 30, 2023		12.255 % Jan 27, 2024
1 Year	+369.5 bp	8.450 % Jan 31, 2023		12.255 % Jan 27, 2024

Current Yield: 12.200%
Last update 30 Jan 2024 0:15 GMT+0

□ 방글라데시 수입, 23-24 FY 상반기 전년 대비 18% 이상 감소

- 방글라데시는 2023-24 회계연도 상반기(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까지) 동안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18.19% 감소하여 총 336억 8천만 달러를 기록.
- 방글라데시 은행(BB)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적으로 실제 수입대금을 나타내는 신용장(LC) 결제 총액은 336억8351만 달러로 전년도 해당 기간 기록한 411억7528만 달러보다 감소.

- (BB 자료) 7~12월 방글라데시의 전체 수입 주문도 전년 동기 대비 5.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식 수입신용장 자료) 전체 수입주문은 지난 회계연도 같은 기간 347억8472만 달러에 비해 7~12월 32,929.3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방글라데시의 최근 2022-23 회계연도 무역적자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수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48.41% 감소한 171억6,000만 달러를 기록.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다카-서울 관계,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

- 박영식 한국대사는 COSMOS 그룹의 “Bangladesh-South Korea Relations : Prognosis for the future”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한국은 인도나 중국, 미국이 아니며 (방글라데시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언급.
- 방글라데시와 한국의 양방향 교역은 최근 30억 달러를 돌파.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 규모는 누적 금액 기준으로 다섯 번째 규모.
- 한국 대사는 신발·가죽, ICT, 제약, 조선, 블루 이코노미 및 심해 어업, 농기계, 온실 및 탄소 거래 제도 등을 새로운 양국 협력 분야로 선정.
- 방글라데시의 FDI는 GDP 비율 기준으로 가장 낮음. 2023년 7~9월 중 36%가 감소. "모든 나라가 비슷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자 문제, 통관, 합리적인 관세 정책, 보유세 없는 이윤의 송환이 더 중요하다. FDI는 주재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요구한다. 방글라데시는 외국인 직접 투자 대신 과거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소프트 론을 빌리는 데 집중하고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또한, 이를 위해 인프라 개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
- 대사는 방글라데시는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크고 한국은 이미

RMG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방글라데시 인프라 개발의 주요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어떤 사업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사업비를 일부러 부풀리지 않고 적기에 완공하는 데 주력한다"고 언급.

- 또한, 매그나 대교와 논의 중인 BSMSN 상수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 특히, "경제개발기금(EDCF)은 금리 0.1~0.5%, 만기 30년 조건으로 방글라데시가 활용할 수 있다"며 EDCF 규모를 2027년까지 30억 달러로 늘렸음을 강조함.

□ 정부, 외자사업 가속화 움직임

- 방글라데시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480억 달러에 가까운 상당한 규모의 대외 대출 잔액에 직면한 상황. 현재 외환 보유고의 2.5배에 가까운 이 금액은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당 부분 미집행 상태임.
- 정부는 외자 사업을 가속화하고 해외 차관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고위급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총리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할 예정. 외자사업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개발협력사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 같은 결정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주재하는 방글라데시 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짐.

□ 2개의 고속도로 개발 계획, 더 많은 자금을 요구

- 두 개의 초대형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는 도로 확장 작업을 제때에 완료하기 위해 기존에 할당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요구.
- RHD(도로국) 관계자들은 25일 엘렝가-하티쿰룰-랑푸르(Elenga-Hatikumrul-Rangpur) 및 다카-실렛 고속도로(Dhaka-Sylhet highways)에 대한 추가 자금 요청.
- 2023-24 회계연도 RDP에서 ADB가 자금을 지원하는 '엘렝가-하티쿰룰

- 랑푸르 4차선 고속도로 개발에는 Tk 72억8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을 요구.

- 시행사는 다카-실렛 고속도로 사업을 위해 당초 ADP에서 현재 지출액보다 높은 24억4000만 Tk를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
- "우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제때에 끝내기 위해 RDP에 여분의 돈을 구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가와 지역 연결에 매우 중요한 경제 희망입니다."라고 RHD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발언.

* 당초 2016년 1,189억 9천만 Tk로 시작되어 2021년으로 마감시한이 설정된 ASEC-02 프로젝트는 ADB로부터 주목할 만한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첫 번째 수정을 거쳤으며, 그 후 비용은 1,662억 Tk로 증가, 그 기한은 2024년 12월로 연장. 후속 특별 수정에 따라 프로젝트 비용은 1,867억 9천만 Tk로 증가.

** 한편, RHD는 총 1,691억 8천만 Tk를 투입하여 2022년 말 ADB가 지원하는 210km의 다카-실렛 고속도로 프로젝트 시작. 2021년 2월 국가경제위원회(ECNEC) 집행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여 2026년 12월을 완공 시한으로 설정.

□ 자무나 철교, 12월 이전 개통 예정

- 프로젝트 책임자(알 파라 모하마드 마수두르 라흐만)는 "자무나(4.8km 복선 이중궤 철도 선로) 강 위에 전용 철교를 개통하는 사업이 12월 이전에 개통될 것으로, 이를 통해 북부 지역과의 철도 소통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 Tk 1,678억 프로젝트의 72.40%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JICA는 다음(6월)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원조제공 예정.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4.8km의 철교에 대한 공사는 76.5%가 완료. 전체 49개 경간 중 29개 경간, 총 연장 2.85km의 공사가 완료.
- 마수두르 라흐만 프로젝트 책임자는 모든 재료가 국내에 도착함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장애물이 끝났다고 언급.

□ BSMSN공단, 제안된 투자의 4%만 실제 실행

- 방글라데시 최대 경제지대인 방가반두 셰이크 무지브 실파 나가르 (BSMSN)는 전략적 위치로 국내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국가 교역의 판도를 바꿀 예정.
 - 채토그램(Chattogram)의 약 33,800 에이커의 땅에 건설된 BSMSN은 다카(Dhaka)에서 200 킬로미터, 채토그램(Chattogram) 항구와 샤아마낫(Shah Amanat) 국제공항에서 7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교통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BSMSN은 지난 4년 동안 185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외 투자 제안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
 - 그러나 2022년 11월 경제 구역 출범 이후, 이러한 제안의 실제 시행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디게 진행.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경제 구역청 (BEZA)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부적절한 가스 공급 및 기타 유틸리티 인프라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제안된 투자의 단지 4.15%인 7억 6,800만 달러만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8,000만 달러 수준에 그친 것임.
- ⇒ BSMSN 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 (PMO, LGRD, BEZA, CWASA, PPPA) 등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조속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PPP방식의 한-방 G2G 협력이 더욱 중요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아와미 리그의 힘은 국민이 아닌 인도에서 나온다”

- 루홀 카비르 리즈비 BNP 수석합동사무총장은 어제 아와미리그의 힘은 방글라데시 국민이 아닌 인도에서 나온다고 밝힘. 그는 BNP 나야팔탄 중앙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와미리그 지도자들의 발언은 국민이 아닌 인도가 당의 실질적인 힘의 원천임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

- BNP 대표는 또 AL 정부가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살해'에 항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그는 사법당국이 작년 10월 28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전국에서 1,186건의 사건에서 2,75,026명 이상의 BNP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체포했다고 밝힘.

□ “아무도 선출된 정부를 축출할 수 없다”

- 아와미 연맹의 오바이들 퀴더 사무총장은 아무도 헌법상 선출된 정부를 무너뜨릴 힘이 없다고 강조. 그는 AL는 민주주의를 믿고 있으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어떤 악의 세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또한, 퀴더 도로교통·교량부 사무총장은 "BNP는 선거에 나오지 않아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며, 제12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여정을 시작한다"고 발언.

□ 다카 공기, 24년 1월 30일 아침 세계 최악

- 다카는 화요일 오전 8시 55분 AQI 점수 269점으로 최악의 공기 질을 기록하며 전 세계 도시 중 1위를 차지. 공기 질 지수에 따르면 다카의 공기는 매우 건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
- 다카는 오랫동안 공기 오염 문제로 고심. 다카의 공기 질은 보통 겨울에 악화되고 장마철에는 좋아짐.